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네가 그리스도냐?

(마 26:57-68)

예수님이 결국 체포당하셨고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갔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급격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루살렘 입성 때 백성들이 마치 왕을 영접하는 듯한 모습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할 만큼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그 당시 실세였던 안나스 증경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지 밀실 야합을 했습니다.

본문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심문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끌려간 곳은 산헤드린 공회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개인 집 틀이었습니다(58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갖은 거짓 증거를 들이댔지만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1. 네가 말하였느니라

대제사장 가야바가 “네가 그리스도냐?”고 묻자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느니라”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답변이 예수님의 사형선고에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59-66절). 신성모독죄, 소위 참람죄 보다 더 애매모호한 죄목은 없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히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죄목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대망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사형에 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자기의 사명을 다할 때는 참으로 없어서 안 될 귀한 존재지만, 교회에 진리가 떠나고 생명이 없어지면 오히려 세상에 없는 것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2. 그러나 이후에 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24절).

주님은 지금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치 어린양이 이리 떼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용히 머리를 드시며 무리가 분명히 듣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얼마나 담대하고 신념에 찬 선언입니까?

기독교는 ‘그러나’의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씹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네가 그리스도냐?’고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과, 영광중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볼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한국교회 안에서 그곳이 어둠기에 더욱 더 밝고 요긴하게 쓰임 받고 분명하고 담대한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Are you Christ?

(Matt. 26:57-68)

At last, Jesus was arrested and his disciples left Jesus and ran away. Since Jesus saved Nazareth's life from death, many Jewish people had followed Jesus. When he entered Jerusalem, the moment just as they welcomed Jesus the Jewish leaders received a huge threat so they wanted to kill Jesus. That is why they plotted in a secret room how to kill Jesus at the house of Annas, Former the High Priest who was influential, at that time.

The text indicates the situation of which Jesus was examined illegally at the house of Caiaphas, the High Priest. The place where Jesus was drawn by them was not the whole Sanhedrin, but the private yard of the High Priest (v. 58). The Chief Priests and the Whole Sanhedrin were looking for false evidence against Jesus so that they could put him to death, but

Jesus remained silent.

1. It is as you say

When the High Priest Caiaphas said to Jesus, “Are you Christ?” Jesus said firmly and clearly said, “Yes, It is as you say.” Jesus knew that this reply would be accepted as decisive evidence for the death sentence (v. 66). There is no more vague charge than Blasphemy, so called, the sin of audacity, which was his response, but it was certain that there was no other charge to kill Jesus.

Those who loved Christ and hoped for Christ declared that Jesus' execution was reasonable. When the church in the world carries their work wonderfully, it must be a valuable existence in our life. But if the truth leaves from the church and loses its life, it becomes much better than not to exist in the world.

2. In the future you will see 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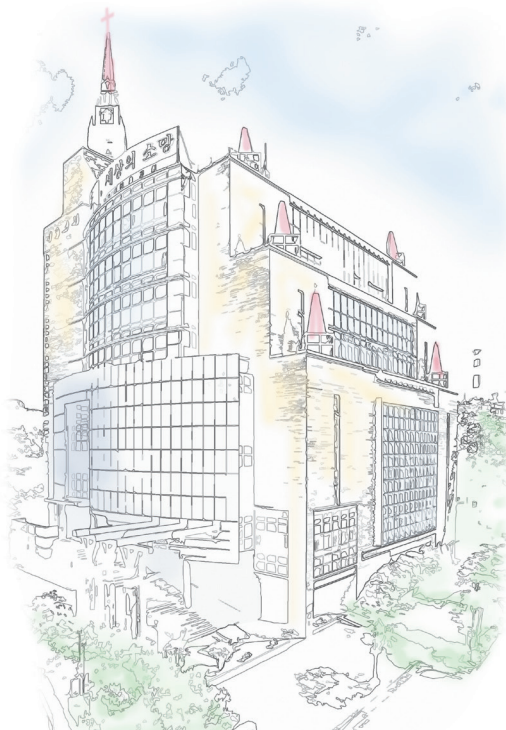
“Yes, it is as you say,” Jesus replied, “But I say to all of you. In the future you will see the son of man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the Mighty One and coming on the clouds of heaven” (v. 64).

Jesus now was surrounded by the people who hated him. It was no different from a lamb which is surrounded by a pack of wolves. However, Jesus raised his head and said clearly to let the crowd hear. “You will see the son of man sitting at the right of Mighty One and coming on the clouds of heaven”. What a bold and faithful declaration he had?

Christianity is ‘however’, religion. Just as the Apostle Paul said, we are persistently bullied by others, but we are never discouraged.

My beloved Christians,

When the world asks, “Are you Christ?” we must clearly answer, ‘we will see the son of man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the Mighty One and coming on the clouds of heaven.’ In the midst of Korean churches that pass through a dark tunnel, by making the darkness into light, by being used with a great help,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clear and bold witnesse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3/4분기 섬김위원 추가임명

* 위원회

1. 예배위원회

- 주일1부안내 : 김학중
- 주일3부안내 : 박태규 송희숙
- 수요일부 안내 : 김광래 박금희1
- 주일3부 봉헌 : 조연숙1

2. 찬양위원회

- 가브리엘찬양대 : Tenor 김성호3
- 할렐루야찬양대 : Soprano 정은영4 Alto 김영숙5
이향수 Tenor 이재욱3 조재원1 Bass 고광석
- 임마누엘찬양대 : Tenor 안진혁
- 베들레헨찬양대 : Tenor1 노현준 Bass 고석태
- 시온찬양대 : Soprano 김선자2

- 갈렙찬양대 : Soprano 송미정
- 아멘관현악단 : (사임) 여건수 박은송 김기남 최명아

3. 교육위원회

- 교육1국 : 초등부 조영제

4. 새가족위원회

- 새가족부 : 김효순 (사임)장기숙

5. 교구위원회

- 2교구 : 2 다락방 부다락방장 지강희
- 16교구 : 15 다락방 다락방장 박은경1
부다락방장 고은선 <사임> 이영주8

* 당외 소속기관, 부서 및 행사

- 설교사역도고부 2팀 : 팀원 이진리
- 차량관리부 : 배효복 박태엽

이웃과 함께 하는 2015 사랑의 바자 사랑나눔운동 릴레이!

2015 사랑의 바자(위원장 : 홍성주장로)의 일환으로 8월 한달간 진행되는 사랑나눔운동이 교역자, 장로들에 이어 교구 부교구장과 간사들의 기증과 기부(약정)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에는 사랑의 우물파기, 화장품, 디너세트, 재활용품, 재능기부등이 접수되었으며 많은 분들이 기부천사 모금에도 참여하였다

사랑나눔 기부 약정자 명단

(1교구) 이우진, 손용문, 김진희, 박정희, (2교구) 이준호, 정치은, 정은순, (3교구) 오승민, 이성우, 김순영, 조웅기, 이경란, 서선옥, 유복진, (4교구) 정찬빈, 권성열, 박민숙, 임광우, (5교구) 김승록, 고석태, 전인숙, (6교구) 박정인, 옥종호, 최성희, (7교구) 이태원, 백승갑, 배경옥, (8교구) 김광욱, 손태현, 서영희, (9교구) 송인수, 조상계, 유묘중, (10교구) 서명조, 홍창훈, 김은순, (11교구) 김광룡, 박종권, 김양숙, 홍석현, (12교구) 신봉하, 이민호, 전숙향, (13교구) 주동제, 최원석, 장영순, 김영옥, (14교구) 차영도, 김흥기, 박종숙, (15교구) 정완진, 이덕성, 남현주, 김희순, 신용식, 김신영, (16교구) 최규초, 이길재, 이선희, (기타) 이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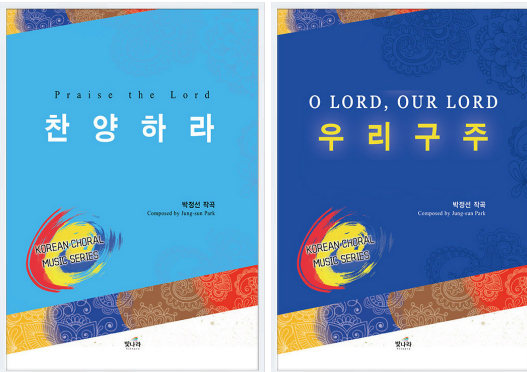


박정선 장로 찬양곡집 2권 출간

박정선 장로(찬양위원장)은 두 권의 찬양곡집을 '빛나라 출판사'를 통해 출간하였다.

"찬양하라 '(PRAISE THE LORD)'는 서울교회의 오르간 전면에 쓰이는 에베소서 5장19절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된 곡이다. 라틴어가사를 사용하였으며 한국의 전통적 가락과 한국적 색채감이 드러나게 작곡되었다.

"우리구주"(O LORD , OUR LORD)는 서양의 현대화성과 동양의 선율에서 빛어지는 화성적 색채를 혼합하여 만들어진 곡이다. "찬양하라"는 5악장으로 "우리구주"는 6악장으로 되어있다. 1악장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2악장 하나님께 영광을, 3악장 신앙고백(Credo), 4악장 거룩하신 주님, 5악장 복있도다, 6악장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되어있다.



*구매는 '빛나라' 출판사로 하기 바란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은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80)

(문 180) 바울은 로마서 5:14에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답) 롬 5:12-14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에게 죽음은 본질상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와 불순종의 죄로 죽음이 인간에게 형벌로 주어졌습니다.

2)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에게 뿐 아니라 그의 후손 모두의 것이므로 아담의 범죄와 죽음은 인간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

3)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도 인간에게는 이미 죄가 있었으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4) 그러나 아담의 원죄는 모든 인간에게 전수되어 비록 그들이 아담처럼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죄인이 된 것입니다.

아담을 원망하는 이들이 있으나 누가 아담과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모르는 갓난아기는 불순종의 죄가 없다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갓난아기에게 아담의 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롬5:14에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갓난아기가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사망이 그를 지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비논리적이고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는 이 교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범죄한 적이 없는 사람이 왜 핏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과의 언약 시 아담과 그리스도 두 분을 인간의 대표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요 그리스도는 구원받는 백성의 대표자입니다. 전자는 행위언약에서 불순종으로 실패했지만 후자는 무죄한 자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와 사랑을 이루어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아담의 죄가 전가되었듯이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그를 믿고 그에게 속한 모든 이들에게 의로 인정되어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효험이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이에 게만 주어진다면 믿고 회개할 수 있는 의식을 갖지 못한 갓난아기들은 모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출생 전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 하였다"(렘1:5)고 하시었습니다. 예지하시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응답을 기다리시지 않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바울도 같은 방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분별력이 있기 전 그가 하나님을 믿을 지를 예지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면 하나님은 그 아이를 부르시고 구원을 주셔야 할지 아닐지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갓난아기들이 죽으면 그들이 죄를 범치 않은 고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가 있다는 사실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3절은 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영아는 어려서 죽는다면이라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다"

(다음 주 계속)

광복70주년 특별기고

광복 70년, 대한민국 건국 67년, 그리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 우리나라는 복음에 빛진 나라이다
하나님 사랑에 빛진 나라이다
이름도 없이 죽어간 순교자의 피에 빛진 나라이다 ”

1945년 8월 최후의 발악을 하던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자 하루 아침에 항복을 선언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렇게 꿈을 꾸는 것처럼 이 나라에 해방이 찾아왔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기까지 이 나라는 말할 수 없는 격동기를 보내게 된다.

미국, 영국, 소련 3국은 우리나라에 신탁통치를 시도 했고 국내에서는 신탁통치 반대와 독립정부 수립을 위해 몸부림 쳤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폭동과 시위가 이루어지는 등 흥해를 건넌 뒤의 광야생활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탄생되었다. 1948년 5월 제헌국회가 형성 되고 199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제헌국회는 7월17일 헌법을 제정하고 1948년 8월 15일, 마침내 대한민국은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인정받으며 독립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소련이 점령하고 있던 북한은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 선포함으로써 한반도는 불행하게도 남북으로 분단 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1950년 6.25전쟁, 꽃이 채 피지도 못한 이 땅은 폐허가 되었다. 수많은 사상자, 전쟁고아, 남북 이산가족, 갈등과 이념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체기를 남기고 1953년 6.25전쟁은 정전이 아닌 휴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아직도 전쟁 중인 것이다.

모두들 우리나라를 바라보며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겠느냐고 비웃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은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 누가 이리 될 줄 알았을까? 이제 우리나라는 기독교강국, 경제대국, 스포츠대국 등의 별명을 가지며 많은 나라들이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복음화 된 통일조국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남아 있다. 군사적충돌이나 정치적 무력이 아닌 복음화된 통일만이 진정한 통일대한민국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복음에 빛진 나라이다.
하나님 사랑에 빛진 나라이다.
이름도 없이 죽어간 순교자의 피에 빛진 나라이다.

북한의 김정일이 계속 집권할 때 핵폭탄 100개를 보유하게 된다고 한다. 많은 정치학자와 신학자들은 북한에 쿠데타, 혹은 내부 붕괴, 아니면 점진적 변화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고인물이 어찌 썩지 않겠는가.

반만년 끊임없는 외세의 침입도, 참담했던 36년간의 일본강점기도 꺾듯이 이겨낸 이 나라가 아닌가! 지금은 이 나라의 보물인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연이 일어나 또 한 번 깨어 기도해야 할 때다. 조국의 희망은 하나님과 교회뿐이다.

애끓는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힘입어 광복 70년, 대한민국 건국 67년을 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일구어 가겠는 내 동포의 눈물을 닦아주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의 실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평화, 세계복음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자.

(편집부)

광복70주년 특별기고



신동기 권사(12교구, 시인)

그대
하얀 옥광목으로
서러움인 채 단장하고

목메이는 속 울음
서슬 퍼런 한강
서울의 대 동맥으로 흘러간다

신앙을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몸을 빼앗기고

멀리, 멀리 갈수록
울부짖고 달려간
36년의 목선 거대한 산맥
위대한 대한민국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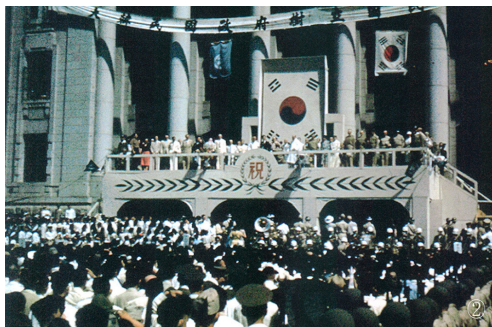
그대
온 몸 피멍 들고
살점 터질 때마다
참으로 애닦고 찬란한 시로
이 땅의 푸르른 힘줄
붉은 새살로 솟아 올라

광복의 기쁨
태극 깃발의 물결
바다처럼 출렁인다

눈물도 마를새 없이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쓰라린 단절의 시간

지금도
그 피가 어기차게 흘러
분단의 사슬을 끊고
세대에서 세대를 넘어
한라에서 백두까지
보혈의 피로 덮여

광복 70년
통일의 원년으로
민족의 뜨거운 제단
거룩한 기쁨 되어
삼천리 금수강산 온 천하에
심자가 그 피로
통일의 불을 당긴다



1. 중국 충칭(重慶)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맞은 광복
2. 대한민국정부수립

2015 비전트립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도우셨습니다



박종권 집사
(인도비전트립담당)

8월1일부터 8일까지의 7박8일간의 인도비전트립을 위해 5월13일부터 두 달반을 준비했습니다. 8월1일 출발예배 후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로 향했습니다. 서울교회 성도들께서도 풍성한 후원금과 물품기증으로 지원하였고, 성경책, 발전기, 복사기, 앰프 및 음향 시설, 팬, 의자 구입에 필요한 목적헌금을 하여 선교사님께 전해드리고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나가나할리 지역의 아가페타운은 사진에서 보는 것과 달리 공간이 좁아 사역하는 데 힘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음 사역지인 딘네교회와 니모처나 교회의 사역지를 사전 탐방하게 되었고, 후속조치를 취해 사역이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인도에 도착 후 영적 지도자인 서준권 목사님의 인도로 매일 아침에는 경건회로 저녁에는 평가회 및 기도회로 모였으며, 첫날은 11시쯤 평가회 및 기도회가 끝나기도 했지만, 덕분에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팀은 접수에서부터 일일이 혈압을 재주고 당뇨체크를 해주며 정성과 시간을 들여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못을 밟아 발이 썩어 들어가는 당뇨환자의 발을 수술하고, 등에 손이 뭉개져 그대로 굳어있던 손가락을 수술하며, 흰 발가락을 수술하여 바로 잡아 주고, 통증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들의 치료를 위해

주사를 놓고, 깨져 있는 앞 이빨을 치료해주어 젊은 아가씨의 미소를 찾아 주기도 하였습니다.

어린이사역팀도 김정옥선교사가 운영하는 나가나할리 교회 유치원의 어린 원생들과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딘네교회, 오엠센터 학교, 니모처나 교회 및 치그라푸라의 제2아가페센터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준비해간 프로그램을 은혜스럽게 진행하며, 평소 교회를 찾지 않는 많은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워쉽, 독창, 무언극, 인형극의 공연사역으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방문하게 하여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주방팀의 두분 권사님들은 2평 안팎의 비좁고 불편한 주방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30명 이상의 식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나가나할리 교회에서 2시간30분 떨어진 치그라푸라에 서울교회의 후원으로 지어지고 있는 제2아가페센터는 이번 비전트립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지역이고, 한두의 세력이 강하다고 들었기에 긴장되는 지역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의료사역과 어린이팀 공연사역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상식, 김정옥 선교사는 제2아가페 센터가 완성되면, 현재의 사역지인 나가나할리 교회를 인도 현지 목사님께 넘기고 치그라푸라로 완전 이주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힘써 개척하여 안정권에 들어선 교회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선교사님의

의 도전과 용기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의 정신이라 여겨집니다.

이상식, 김정옥 선교사는 학교를 3층으로 짓고 고등학생까지 그곳에서 교육하기를 원하고, 선교센터도 지어 선교사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1층까지 지었지만, 곧 3층까지 지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사역을 끝내고 돌아가는 어린이들에게 풍선으로 모자를 만들어 주는 동안 소나기가 내렸지만 어린이사역팀 단원들은 비를 맞아가며 열심히 모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모자를 받고 사역이 끝났을 때 비가 그치며 하늘에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무지개가 떠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30명의 단원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곳에서 의료진료 571명, 어린이 사역 583명 총 1,154명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반기 다락방리더수련회

- 일 시 : 8월 21일(금) 오전 10:30~12:30
- 장 소 : 2층 분당
- 대 상 : 다락방리더(다락방장, 부다락방장), 교구간사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20일(목) 할렐루야교회 설립35주년을 위해 초대목사로서 영상인터뷰를 한다.
- 교역자 휴가: 임규현 목사(8.17-22) 대행 서명철 목사
- 주일식당봉사 : 한나 전도회(8. 16) 에스터 전도회(8. 23)
- 금주의 식사 제공 : 교회제공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사랑나눔운동에 동참하여 이웃과 함께 하는 2015 사랑의 바자가 될 수 있도록
2. 세례, 입교, 개종, 유아세례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3. 분단 70년을 맞이한 우리 민족에게 복음화 된 통일조국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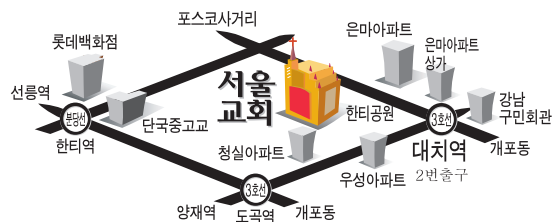


사진 : 임종현 성도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 배	오후 1시 30분	본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본 당 II 층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회 오시는 길



서울교회QR코드

